

「화해의 열매를 향하여」

~제 4 회 한일역사공동연구회 보고~

복음에 의한 화해위원회와 역사편찬위원회는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와 한국성결교회 역사편찬위원회 협찬으로 한일성결교회 역사공동연구회를 개최하여 올 해로 4년째가 됩니다. 올 해는 한국 가평시에 있는 필그림하우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리트릿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측으로부터는 교회사를 전공하고 계신 18명의 연구자가 참가 하였습니다. 일본측에서는 목사 5명과 신도 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번의 주제는 「1930~1950년대의 한일성결교회·종교정책과 교회」였습니다. 이 기간은 제2차세계대전을 포함하고 또한 한국을 병합한 일본이 참담한 인권침해를 거듭했던 어두운 시대입니다. 일본과 한국교회에 공통하는 것으로 탄압을 경험한 것과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관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과 병행해서 타협이라는 역사의 그늘도 있었습니다.

박명수목사의 발제인 「일제말의 종교정책과 성결교회」에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신앙적 싸움의 빛과 그늘에 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일제말의 가혹한 시련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조국을 지켰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등지고 일본의 시책에 순응하였습니다. 해방이후 일본의 시책에 순응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교회의 지도자들로 남아있으며 그들의 친일적 행적은 금기의 영역이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후세의 교훈으로 정직하게 기록을 남기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카미나카목사에 의한 발제인 「전쟁시 일본에 있어서의 홀네스교회의 발자취·코야마 소오스케 자살사건을 관련해서」에서는 홀리네스교회의 전도자인



박명수 박문수 히라노목사

코야마 소오스케가 헌병대에 의한 취조 중에 옥사한 문제를 정중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코야마 소오스케 전도사는 1942년 1월 16일 하코타테헌병대에 의해서 구속되어 3월 26일 새벽에 사망하였습니다. 전해진 사인은 「

자살」입니다만, 고문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체를 가져온 분의 증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사참배거부로 이해된 코야마 전도사를 제 6부의 교역자회는 비국민적인 사고를 가진자 또는 탈선적인 언동을 한자라고 말함으로 그 것과 자신들은 다르다 라고 하는 의미의 홀리네스 탄압시의 재판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찬희목사의 발제인 「1950년대 초기의 한국성결교회·한국전쟁과 교단의 수난」에서는 한국전쟁에 있어서의 수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기간시설 80%를 파괴할 정도의 물질적 피해를 이르렀습니다. 사망자는 남측이 약 63만명 북측이 약 88만명, 부상·납치·행방불명은 남측이 150만명 북측이 332만명이라고 하는 방대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어서 완전하게 파괴된 교회수가 장로교회 619, 감리교회 239, 성결교회 106, 구세군 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찬희목사는 성결교회의 교회나 신학교가 받은 수난(추방, 고문, 순교)의 기록을 소개하였습니다. 정읍의 두암교회에서는 아이들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총 23명이 순교했습니다. 윤임래집사는 목에 칼로 찔림을 당하면서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젊은이와 같이 붙잡혔을 때에 내 목숨은 맘대로 해도 좋으니 이 젊은이는 자유롭게 해주기를 구하며 순교했습니다. 공산주의에 의한 수난 가운데 희생이 된 분들을 기억하며 「순교의 영성」으로 현대에 있어 기도를 심화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에서는 목포 근처의 섬들에서 열매가 풍성한 선교가 이루어졌으며 1950년에 순교한 문준경전도사를 기억하면서 순교기념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터틀리안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순교자를 신앙의 못자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상훈목사는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75주년 기념지를 가지고 「히로시마성결교회 역사」라고 하는 발제를 하였습니다. 히로시마성결교회는 「한국교회입니까 일본교회입니까」라고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곤란을 넘어 사명에 사는 국제적인 교회를 통하여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어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エペソ 2 : 15)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 하였습니다.

습니다.



이상훈목사



독립기념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연구소 소장인 박명수목사에 의한 특별강연이 있었는데 일본 홀리네스교단의 전쟁책임고백에 대해서 정중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진지한 회개를 담은 전쟁책임고백이 일본홀리네스교단으로부터 나와있음을 깊게 받아들이며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책임고백을 통하여 검증과 대화가 깊어질 것을 원하며 몇 가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①전쟁시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 특히 타교파와의 비교 ②전쟁시 일본교회의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의 평가와 과제 (장점과 단점) ③당시의 일본정부의 근본문제 지적 ④오늘의 의미로서의 문제 「종교의 자유」 등 중요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측 출석자들에게 있어서 박명수목사의 응답은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책임을 고백하고 나서 13년 정도가 됩니다. 다만 이만큼 정면으로 응답을 받은 적이 지금까지 없었고 역사연구소의 책임자 되신 분으로부터 전쟁책임고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가 그리고 더 한층의 대화가 요구되어진 것은 한 없이 기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박찬희 목사도 전쟁책임고백에 대한 응답논문을 현재 쓰고 있는 중입니다. 가을부터 복음에 의한 화해위원회에서는 한국 목사님들로부터 받은 응답에 대해서 레스폰스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포럼후에 남이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에서 리프레쉬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울연가의 로케지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 후에 독립기념관 제암리교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돌아보고 일제시대의 여러가지 인권침해와 해방을 원하는 독립운동 기록을 다시 한 번 배우는 귀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북한과의 국경(38도선)을 볼 수 있는 도라산전망대에도 갔습니다. 북측으로부터 국경을 넘어 파들어간 제3땅굴에도 갔습니다. 한국과 북한간에 있는 긴장관계를 절실하게 실감했습니다. 또한 국경 근처의 조용한 강의 저편이 북측이라고 하는 장소에 서서 철선에 기도가 쓰여진 형형색색의 천이 묶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주여, 형제이어야만 할 나라들이 아픔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치유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흘러 나왔습니다. (번역자 추가 : 아마도 자유의 다리를 북한이 보이는 국경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의 역사자료실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번 역사공동연구회에서는 전쟁책임고백에 관하여 진지한 응답을 받았던 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 것을 계기로 이해를 깊게하며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화해의 복음을 들고 더 깊은 대화를 진행해 갈 것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문책·미야자키 호마레 목사)



자료실에 있는 귀중한 문헌